

월간 내일



2022년 고용노동 정책

호랑이 기운을 담아
다같이 점핑점핑

장보름 안쪽인간 일러스트 작가 인터뷰는 20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What's on your
bucket list?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도로 위 시민의 안전 지키는
숨은 히어로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일하는 청춘을 위한
속 시원한 한 잔



표지이야기

호랑이 기운을 담아
다같이 점핑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0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What's on your bucket list?



행복 일터

- 04 Intro**
What's on your bucket list?
- 08 Topic**
숫자로 보는 2022년
고용노동 정책 변화들
- 12 System**
2022년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바뀐다고용!
- 20 People**
'안쪽 인간'이 보는 바깥세상 이야기
-장보름 일러스트 작가

희망 일터

- 28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도로 위 시민의 안전 지키는
숨은 히어로
-이창배 대리운전기사
전국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서울지부 사무국장
- 32 곳&곳 오피스**
행복한 직원 만드는
근무혁신 우수 기업의 비결 궁금한가요?
-플립커뮤니케이션즈
- 36 인생 2막**
흔들림 끝에 피워 낸
네 번째 희망
-조진영 국립외교타운 환경관리 공무원직
- 40 청년꿈터**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컬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설진실 씨
- 44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8 고용노동 뉴스**



36

60



64



힐링 일터

- 60 미디어 속 노동읽기**
일하는 청춘을 위한
속 시원한 한 잔
- 64 JOB툰**
보여줍시다! 우리의 호랑이 기운 ·
혼자먹기 VS 같이먹기
- 66 직장탐구생활**
신년에 시작하기 좋은
직장인 유형별 자기계발
- 68 고민타파**
새해를 맞아도 기쁘지 않은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 72 직장인 건강상식**
겨울철 건강관리에 좋은
추천 차 BEST 4
- 74 주말에 뭐 할래?**
1월 영화·도서·음반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 82 애독자 퀴즈**

What's on your bucket list?

*

새해에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생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두는 리스트이죠.
2022년을 시작하는 1월, 올해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목록들이 담겨있나요?

My bucket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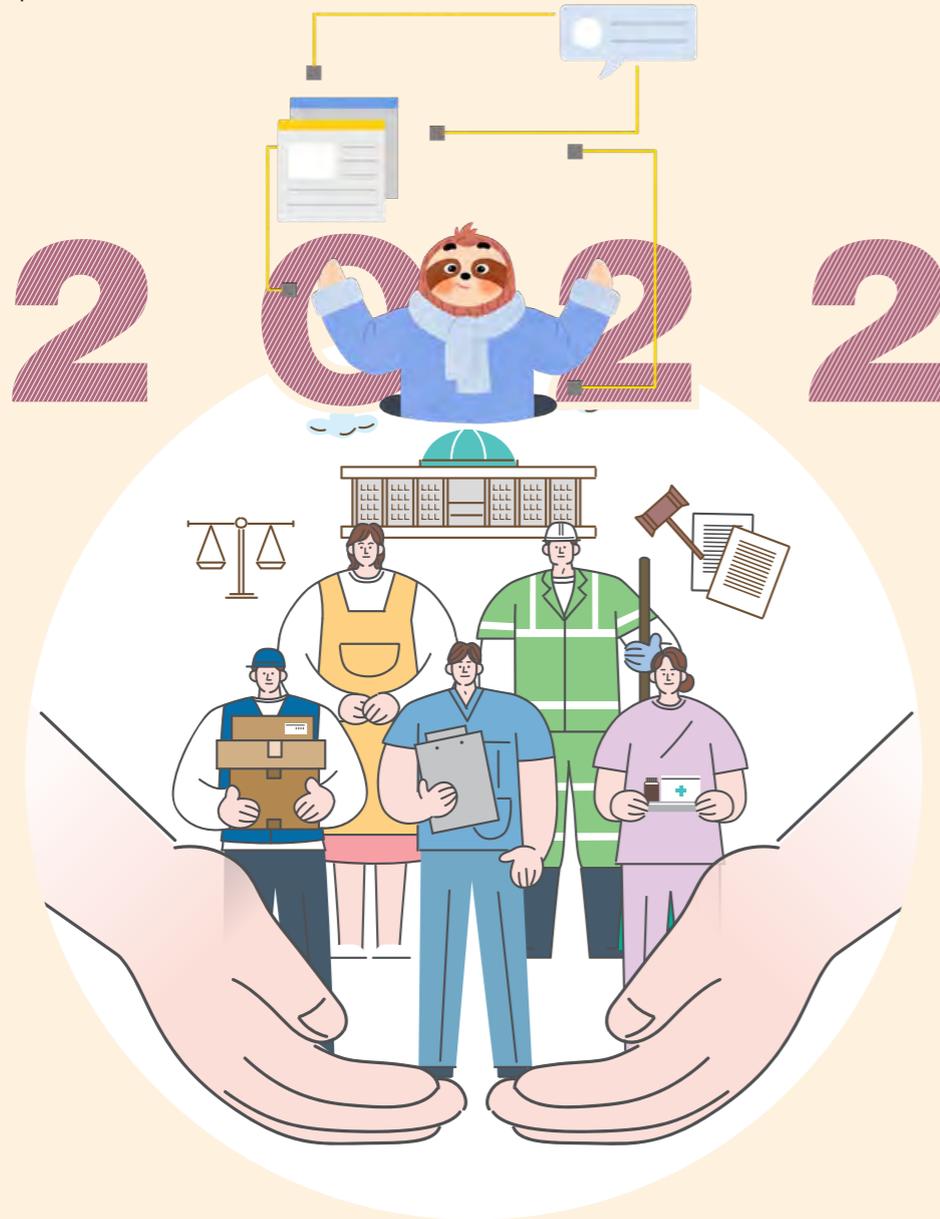
- 외국어 공부하기
- 운동하기
- 나만의 취미 찾기
- 악기 배우기
- 1년에 책 100권 읽기

지난해 잡포털에서 성인남녀 1,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버킷리스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1%가 취업이나 이직을 버킷리스트로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저축·재테크 하기(35.5%), 자격증 취득(32.4%), 다이어트 성공(25.6%), 제주·해외 한 달 살이(18.7%) 등의 응답이 순위를 이었죠. 한 해가 지나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많은 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취업과 이직이 상단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득한 버킷리스트 목록처럼 고용노동부에서도 올 한 해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 싶은 목록을 작성해서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동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시작했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 일하는 부모, 중장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지런히 써 내려간 고용노동부의 버킷리스트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눌러쓴 버킷리스트 목록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숫자로 보는 2022년 고용노동 정책 변화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2022년의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바뀐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된 고용노동 정책 주요소식을 숫자로 살펴봅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최저임금액 인상

9,160 원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3+3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2년 지원규모 50만명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월 80만 원씩 최대 1년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바뀐다고용!

2022년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늘봄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을 파악해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 되었던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1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1·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중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 완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정 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이 기간요건은 폐지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최소 훈련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을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책과 (☎044-202-7309)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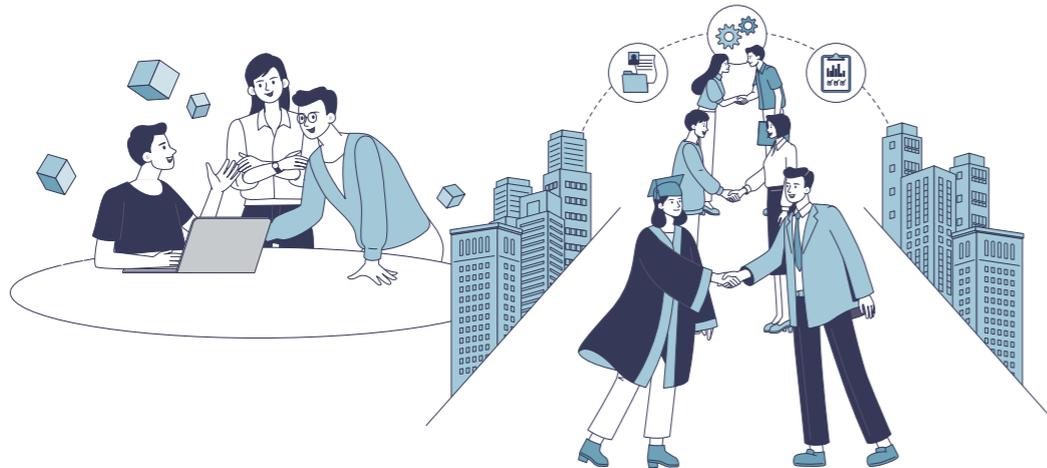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22년 개편 시행됩니다.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이는 현행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서 개정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상향된 것으로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이하 적용 예정)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안쪽 인간’이 보는 바깥세상 이야기

장보름 일러스트 작가



최근 각종 예능에서 ‘본캐’와 ‘부캐’의 구분짓기로 대중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부캐’ 하나씩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계를 위해 사회 안에 어우러져 사는 우리 대부분의 얼굴은 ‘부캐’인 셈이니까요. 고용노동부 <월간내일>에서 웹툰 ‘안쪽인간’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장보름 작가를 만났습니다. 장 작가는 ‘진짜 내 인생은 퇴근 후부터 시작’이라고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만들어 낸 ‘안쪽인간’이 실은 장보름 작가의 ‘본캐’였던 것이지요.



Q_ <월간내일>을 통해 지난 해 안쪽인간이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안쪽인간의 탄생 배경이 궁금한데요. 계정 소개를 보면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한 안쪽 인생을 사는 사람, 퇴사를 꿈꾸며 열심히 사는 직장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어요. 캐릭터 탄생의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안쪽인간’을 시작한 계기는 당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번아웃이 심하게 왔고 어딘가에 마음 속 응어리(?)를 풀고 싶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퇴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버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 때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게 ‘안쪽인간’을 만든 것이었어요. 제 계정도 썼지만 저는 안과 밖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사람이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내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저를 기반으로 ‘진짜 인생은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로 캐릭터를 잡아 ‘안쪽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 늘 다크써클이 얼굴을 뒤덮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안쪽인간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던 것 같아요.

Q_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에서도 ‘안쪽인간’을 동시에 연재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고용노동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계정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런데 막상 웹툰을 연재하면서 댓글을 보니 직장인만 고용노동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고용주도 계시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사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내가 세상을 너무 내 위주로만 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야가 확장됐다고나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생각이 드니, 이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_ 고용노동부에 '안쪽인간'을 연재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직장인 감사병'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거래처에서 일처리 실수로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일을 전화로 처리하고 통화를 마치면서 제가 무의식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어서 순간 '도대체 내가 뭐가 감사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마치 당연한 듯 '네~' 하고 그 인사를 받더라고요. 소위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었어

요(웃음).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 이야기를 그려서 올려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다 감사하다고 하는 '직장인 감사병'에 대해 에피소드를 만들어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댓글은 '나는 길거리에서 홍보 전단지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공감이 되고, 괜히 위로도 얻고 그랬답니다.

Q_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십니다. '안쪽인간'이 직장툰이다 보니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직장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리는 웹툰의 모든 내용은 제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웃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 웹툰을 시작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급별 말투에 대해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 거래처가 많아서 단톡방도 정말 많은데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대화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말투만 봐도 직급을 맞출 수 있더라고요. 하루는 매우 과한 친절함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딱 보자마자 '신입이군' 싶었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과장·차장급은 정말 친절한 표정과 목소리로 명확히 거절하세요. 너무 상냥하게 얘기하셔서 듣는 당시에는 괜찮은데 막상 뒤 돌아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괜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랄까요?(웃음) 이렇게 직급별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말투와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 에피소드 역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더라고요.

Q_ 코로나19로 2021년도 많은 분이 일터에서 나오거나, 사업장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작가님의 본래 같은 부캐인 안쪽인간이라면 어떤 위로와 용기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을까요?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직업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던 한 해였어요. 재택근무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죠. 그래서 더 이것저것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뜻하지 않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고용노동부에 에피소드를 연재할 수도 있었고 다른 업체들과도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한 해였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저는 힘든 시기일수록 틀을 깨고 나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직접 체험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직장인 감사병



안쪽인간은 따뜻한 캐릭터라기보다는 다소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저 희망의 메시지만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이제는 누가 누가 잘 버티느냐의 싸움인 만큼 '버티자' 라고 할 것 같은데요(웃음). 어차피 이 시기는 지나가니, 여기에 매이지 말고 다음 스텝을 밟자고 말할 것 같습니다.

Q_ 연말연초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작가님만의 의식같은 것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송년과 신년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제게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도, 1월 1일도 그저 1년 365일 중에 있는 하루일뿐이에요. 약속을 잡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나 계획적인 성격도 아니어서 그날들을 특별하게 여기기보다는 그저 똑같이 집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웃음).

Q_ 2021년은 작가님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2022년에는 원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직업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던 한 해였어요. 재택근무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죠. 그래서 더 이것저것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은 좀 더 색다른 전환점의 해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내년이면 딱 서른이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서른이 어서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른이 돼야 정말 주체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발 내년에는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당당한 모습의 서른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니 뜻하지 않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고용노동부에 에피소드를 연재할 수도 있었고 다른 업체들과도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한 해였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저는 힘든 시기일수록 틀을 깨고 나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직접 체험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기운을 이어 받아서 2022년은 좀 더 색다른 전환점의 해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내년이면 딱 서른이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서른이 어서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른이 돼야 정말 주체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발 내년에는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당당한 모습의 서른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Q_ 2022년 한 해의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앞서도 말씀 드렸듯 저는 계획적인 사람도 아니고, 태어나서 버킷리스트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버킷리스트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2022년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팔로워 2만을 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웹툰 말고 목적 없이 그리는 그림이요.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림을 못 그리는지 한참 됐어요. 그림을 좋아하는데. 다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꼭 시작하고 싶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는 버킷리스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2022년 한 해에 벌어보고 싶습니다(웃음).

Q_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국 일하는 독자분들과 그간 작가님의 작품에 공감을 표하며 지지해 준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안부와 응원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한해 한해 느끼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풍경을 보면 '저 사람들도 다 나 같은 기분일까'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겠지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웹툰을 연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분들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Q_ 2022년 1월호에 실릴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2년이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잖아요. '검은 호랑이'라고 하니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웃음) 모든 분들이 2022년에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도 물리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작성해볼까요? 2022년 버킷리스트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나요? 2022년 연말까지 이루고 싶은 것 10가지를 아래로 작성해볼까요?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월간내일>

구독자 여러분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휴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의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130,0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2,105,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교통비	161,710원*
상여금	0원**
계	1,811,710원

*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811,710원 ÷ 약 209시간
≈ 8,668원 < 9,160원

∴ 최저임금 위반



권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반드시 확인!!!

“2021. 11. 19.부터 요급 지급 시 요급평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Hopeful



함께 가면 멀진 않습니다

- 28 도로 위 시민의 안전 지키는 숨은 히어로
- 32 행복한 직원 만드는 근무혁신 우수 기업의 비결 궁금한가요?
- 36 흔들림 끝에 피워 낸 네 번째 희망
- 40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컬러
- 44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8 고용노동 뉴스





도로 위 시민의 안전 지키는 숨은 히어로

이창배 대리운전기사
전국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서울지부 사무국장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인과의 저녁 식사나 직장에서의 회식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생겨나는 각종 술자리.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술 취한 고객의 차량을 대신 운행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고객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심 귀가를 돕는다는 책임감으로 매일 운전석에 앉은 이창배 국장을 만나 대리운전기사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운전대를 대신 잡은 손에서 시작되는 안전

이창배 국장의 하루는 아침이 아닌 밤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저녁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중해서 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일과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각종 모임과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대리운전기사를 찾는 ‘콜’ 역시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한 콜이라도 더 잡기 위해 저녁 6시면 출근길로 나섭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지 햇수로 10년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이지만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는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환경경영평가를 하는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벌였던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차츰 회사가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잠시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

운전면허증이 있고 사고 이력이 없으면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는 일.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일상을 보내는 녹록하지 않은 일과 속에서도, 이창배 국장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을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니까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밤의 유령’으로 불렸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했죠. 이번 고용보험 적용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더불어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데에서도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으려고 했어요.” 운전면허증이 있고 사고 이력이 없으면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는 일.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일상을 보내는 녹록하지 않은 일과 속에서도 이창배 국장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을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 이니까요.

예고된 위험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하지만 심야에 음주 상태의 고객을 응대하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종종 찾아옵니다.

“대다수 고객은 그렇지 않고 개인차는 있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은 폭언과 육체적인 가해를 하는 고객을 100명 중 10명 빈도로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실제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 했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할 적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오히려 기사의 서비스 정신을 지적하며 운행에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둘러싼 위험은 운행 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늦은 밤 도시 외곽에서 업무가 끝나 귀가하는 중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이 없거나 다른 물이 들어오지 않는 전원주택지역에 가더라도 업체에서 기사의 귀가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걸어서 도심으로 나와요. 심야에 익숙하지 않은 길을 다니다 보니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한 기사분이 업무를 마치고 도심으로 나오던 중 낙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오기도 했어요. 명백히 업무 중 일어난 일인데도 대리운전기사는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여전히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고를 당하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치료비까지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여러 플랫폼과 다수 업체가 이용하는 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직접 발로 뛰어온 만큼, 그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소식을 반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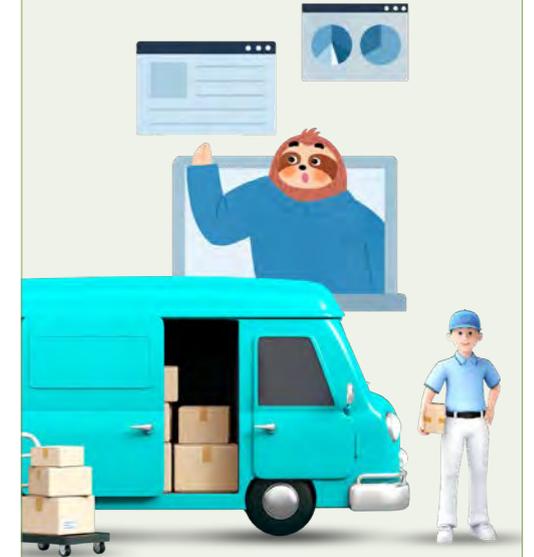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밤의 유령’으로 불렸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했죠. 이번 고용보험 적용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더불어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데에서도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

운행을 마친 후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는 이창배 국장.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업무종사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종사자의 존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기사들에게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판뉴딜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함께 알아보까요?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19



행복한 직원 만드는 근무혁신 우수 기업의 비결 궁금한가요?

플립커뮤니케이션즈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 각종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으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소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함께 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플립커뮤니케이션즈의 이야기죠.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플립커뮤니케이션즈의 비결을 들어봅시다.

경청과 혁신을 거듭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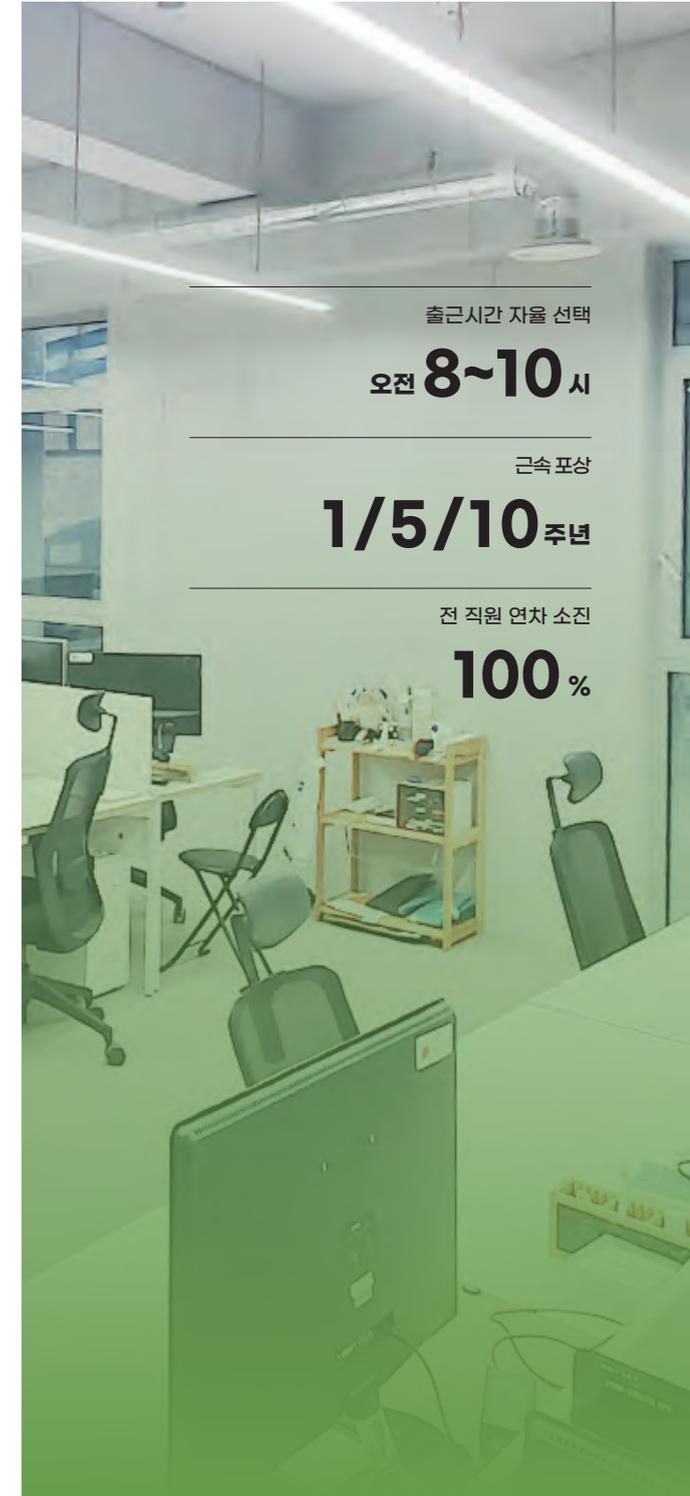
입소문 난 일하기 좋은 기업

플립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립)는 1998년도에 설립된 종합 디지털 컨설팅 그룹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수년간의 경험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이끌며 디지털 1세대 대행사로도 불리우죠.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특히 금융권 디지털 서비스 구축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플립은 ‘직원의 삶을 응원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직원 개개인의 행복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립의 근무 혁신은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내 건의함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의 논의를 거쳐 처리되며 개선 내용을 매월 공지합니다. 올해에만 25개의 크고 작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모든 건의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개선 및 피드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불편 사항부터 프로세스 및 제도에 대한 개편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내 건의함을 통해

Together, we rise above and beyond.



출근시간 자율 선택

오전 **8~10** 시

근속 포상

1/5/10 주년

전 직원 연차 소진

100%



접수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해 알고 이를 근무 혁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을 보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의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근무 혁신과 우수한 기업 문화 조성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문화 조성을 총괄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그룹 유세리 그룹장이 전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며

함께 만드는 기업 문화

플립의 직원들은 오전 10시 전까지 자유롭게 출근하고 8시간 근무를 마치면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이용 중입니다. 월 단위로 사전 계획한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유연근무제와는 달리 매일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를 내규로 정립하며 출퇴근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

동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제’, ‘가족돌봄휴가제’ 등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직원들을 위한 장기 근속 포상 제도 역시 플립의 대표적인 복지 중 하나입니다. 입사 1주년을 맞은 직원은 포상금을, 5년 근속 직원은 유급 휴가와 멤버십 해외 여행 지원을, 10년 근속자는 1개월 유급 휴가와 함께 여행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같은 훌륭한 대우 덕분일까요. 플립의 10년 근속자는 현재까지 총 32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초반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다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좋아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할 때가 많아 이번 휴가에는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주도로 가족 여행도 가고 어린이집 등하원도 직접 시켜주면서 만회를 좀 한 것 같아요. 꿀 같은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리프레쉬된 기분으로 더 힘내서 일하고 싶습니다.” 최근 10주년 포상 휴가에서 복귀한 디자인그룹 신새롬 책임의 소감입니다.

직원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사원공모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주위의 좋은 인재를 추천하면 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채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입사한 직원이 입사 1주년을 맞으면 추천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채용 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직원들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료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죠. 지난 2010년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로 현재까지 64건의 채용이 사원공모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키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헬스키퍼는 근무 시간 중 받을 수 있는 마사지 서비스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도 다소 있었지만, 현재는 선착순 예약이 매일 마감될 만큼 이용률이 높습니다.

Together,
we rise above and beyond!

플립은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며 지난 2011년에는 창사 최초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100여 명의 직원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립은 외형의 확장에만 치우치기보다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내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 8월 내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TFT를 결성했습니다.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해피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플립의 사업은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개발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이 곧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이어서 회사의 이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플립의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내 건의함	장기 근속 포상
시차출퇴근제	사원공모제
자동육아휴직제	해피시스템
남성육아휴직제	헬스키퍼
가족돌봄휴가제	





흔들림 끝에 피워 낸 네 번째 희망

조진영
국립외교타운 환경관리 공무원

마음먹은 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그때마다 그를 다잡아 줬습니다. 덕분에 작년 6월 국립외교타운 환경관리 공무원으로 취업한 그는, 지난 취업 여정을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었기에 네 번째 희망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취업의 어려움

2020년 이전까지 조진영 씨의 취업 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20년 다닌 대기업에서 나온 뒤에도 하고자 하는 대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고수익의 컨설팅기업 헤드헌터로, 중소제조기업 관리직으로 변신하며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쌓았기에 2019년 말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할 때도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 성실하게만 준비하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50대에 들어선 만큼 정년 없이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구직급여를 받으며 목공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몸을 쓰려니 체력이 달렸습니다. 경험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과 목공업계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자, 일자리가 더욱 아득해졌습니다. 조진영 씨의 마음은 점점 조금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달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결심한 바가 있으니 열심히 목공을 배웠지만, 굳이 이 길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때 불현듯 떠오른 장면이 있었으니,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봤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간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실감하고 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껏 잡은 희망의 동아줄

조진영 씨는 작년 4월 처음으로 중장년일자리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연하게 구상했던대로 목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컨설턴트가 차분하게 업계 상황, 현재 경력을 바탕으로 한 취업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새로운 길도 함께 모색할 것을 권했습니다. 조진영 씨는 첫 번째 상담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봤습니다. 고





되찾은 여유, 다시 꿈꾸는 미래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조진영 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국립외교타운 환경관리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타운 건물 내부의 방역 소독은 물론, 외부의 환경 미화도 그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국립외교타운을 찾은 밝은 모습으로 쾌적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의 일로 국위선양을 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회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중장년이 되어 직접 취업에 나서 보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취업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특히 상담자들의 취업을 위해 동분서

심 끝에 그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을 컨설턴트님께 말씀드리니 소방안전관리직, 보안경비직, 시설관리직 등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직군을 여럿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직군이 바로 환경관리직이었죠. 공공기관의 환경관리 무기계약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길게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기에, 이쪽으로 취업 지원서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지만 닿는 길은 자갈밭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이었기에, 지원자 모두가 ‘0’에서 출발해 자신이 얼마나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글쓰기가 서투르다 보니 처음에는 서류전형에서부터 떨어졌지만, 컨설턴트의 맞춤형 첨삭을 받으며 보완하자 면접 소식을 알려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조진영 씨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컨설턴트와 모의면접을 진행하는 등 희망의 끈을 더욱 세게 부여잡았습니다. 그 끝에서 2020년 6월, 그토록 기다리던 문자 메시지가 조진영 씨 핸드폰으로 전달됐습니다.

‘국립외교타운 환경관리 공무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하시는 컨설턴트님들의 노력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실 처음 상담받을 때만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같이 본인 일처럼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시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끝까지 취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일자리를 찾은 덕분에 마음의 여유를 얻은 조진영 씨는 취미로만 여겼던 사진과 여행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며 정년 이후의 삶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라고 하겠지만, 안정적인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자만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에 그는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인생 네 번째 취업의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한 그의 앞날이 오래도록 아름다움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다로운 과정은 이제내고 당당히
공공기관에 취업해 인생 2막을 편치고 계신
조진영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년도
최선을 다해 일하실 거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서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통해

도와드렸던 여러 취업 서비스 중

특히 면접 연습에 진지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관 앞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얗게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하시기에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함께 준비했죠. ‘이보다 더 진지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연습에 집중하셨던

모습이 감동적이었는데요. 이후 강의는 한

때마다 선생님의 사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진지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마음가짐과 열정이 앞으로

다가올 선생님의 인생 3막도 멋지게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인생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김현주 선임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Send a letter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설진실 씨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컬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앞둔 사회초년생에게 ‘백지’ 같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 자신의 커리어와 입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깨끗한 백지에 비유하는 것이죠.
 설진실 씨는 깨끗한 도화지 같은 삶 위에 자신만의 컬러를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였죠.

사진과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다

포토그래퍼를 꿈꾸며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한 설진실 씨는 사진을 배울수록 사진 자체보다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 앞에서 조금씩 스트레스로 다가오던 차에, 어느 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싶었어요. 졸업은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배울수록 제가 이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결됐죠. 그러던 중 컬러리스트 자격증까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컬러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에는 주로 섬유와 패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전제품과 인테리어, 광고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각 분야의 콘셉트에 맞는 독특한 색에 대한 니즈(Needs)가 많은 만큼 컬러리스트는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에



설진실 씨도 자신만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컬러도 공부 필요하다

“1년 동안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 프로그램을 배운 후, 다행히도 국내 한 패션 브랜드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배운 프로그램만 잘 다루면 디자인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업무를 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들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슬럼프가 오기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게 힘들었어요. 디자인을 처음 배웠을 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 이유예요.”

진실 씨는 전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첫 단계로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고, 곧장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증’ 시험은 크게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차례로 합격한 후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나오게 되죠. 이 중 필기시험은 시중에 나온 이론서를 이용하면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실기시험은 독학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학원비가 고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정보를 알아볼수록 학원을 다니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계속 질문이 들던 차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떠오르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고 있었고 미리 카드발급도 받았었거든요.”



나 자신을 다채로운 컬러로 채워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물론 수업 과정이 결코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초반에는 내가 이해하는 게 더더서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같은 문제를 푸는 동안 다음 진도로 빠르게 나가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괜한 도전을 했다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이런 저를 보고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2020 정기기사 1회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죠.”

당당히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진실 씨는 자신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학원에 다닐 수 있을까?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리한 지출과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어가고 있던 저를 보게 됐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당시의 그러한 저를 응원해

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었으니 너무 다행이죠.” 진실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마치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무지개처럼 갈라지듯, 진실 씨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컬러리스트 과정 하나를 배운 것일 뿐인데 생각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부모님처럼 어깨를 두들겨주며 방법을 찾아주었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처럼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등을 밀어주었어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해내고 있어요. 때때로 부족한 점이 보일 때도 있지만,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과 달리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움을 통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혼자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할 때, 그리고 또 다시 저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 수업을 통해 배운 색에 대한 이해와 안목으로 현장에서 더 똑똑하게 적용하고 싶다는 진실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오늘도 한 발 더 성큼 다가갔습니다.

<자격증 취득자's 꿀팁>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계신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자격증 학원이 수업 내용보다는 홍보성 문구만 내세우곤 하더라고요. 이 때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얻으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꼭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상황, 자질,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자격증 수업이니, 지금의 자신이 아닌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꿈꾸세요.

해외취업? So EASY~ 취업담당자 직접 만나봄!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 친구처럼 친절하게 해외취업 정보를 정리해줄 사람! 이번 기사는 해외취업 전문인력 담당자를 만나 해외취업 시장 흐름 전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뉴델리 무역관 담당자
최주희

평소 이런 질문을 받아왔던 친구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대답해준다고 하는데요. 해외취업 희망자 주목! 해외취업의 준비과정과 면접, 각종 구비서류와 고용노동부 정책인 '해외취업정착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주희입니다. 2015년 10월 경,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자기개발 및 국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인도에 왔습니다. 이후 영어, 중국어, 힌디어를 타깃으로 잡아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중국어과에 진학하였으며, 학사 재학 시 주인도 대사관에서 2018년 7월 문 대통령 방인 단기 인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9년 7월 국제관계 정치학 석사로 전공을 변경하여 금년도에 졸업하였고요. 향후 국제기구를 목표로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서남아 본부인, 인도 뉴델리 무역관에서 해외취업 및 인력 채용 지원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Q.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세요.

뉴델리 무역관의 K-MOVE 취업 거점을 운영하며, 노무 웨비나 및 멘토링 등의 행사 개최 및 진행, 해외취업 정착금의 취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K-MOVE 인도 진출 기업 한국인 채용 및 구직자 취업 지원, Contact Korea 한국 기업 인도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취업자 사후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노무 자문 변호사 운영, 취업자 정착 지원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 발주처(태양광, 건설, 신재생에너지, IT 융복합 등) 국내 기업 주선 및 미팅 개최 업무, 긴급 자사화 한국 기업 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해외취업시장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취업은 주로 한국 산업인력 공단의 World Job Plus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외에 대한 젊은 인구층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코로나와 별개로도 꾸준한 수요 및 취업자가 있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유망한 시장입니다. 다만 World Job Plus는 국내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직 플랫폼만큼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인도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이 되어 있으나 현재는 다시금 활성화되는 추이입니다.

월드잡 기준 해외취업자 현황은 2016년 4,811명, 2017년 5,118명, 2018년 5,783명, 2019년 6,816명이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4,400명으로 하향되었으며, 국가별 취업자 현황은 18~20년 기준 일본이 5,517명으로 35%, 미국이 3,805명으로 24%, 싱가포르가 1,368명으로 9% 순이며, 이 외에도 베트남 1,182, 호주 858, 중국, 중동 483, 캐나다 316, 기타 1,548명이며 직종별 취업자는 사무직(5,686), IT 의료 기계 전문가 등의 전문직(5,532), 서비스직(2,705), 관리자(2,194), 판매(552), 기능(223), 기타(172) 순으로 구성됩니다.

구직 연령대는 25~29세가 55%로 가장 많으며(20~24세 14%, 30~34세 20%, 35세 이상 11%), 경력사항은 1년 미만인 32%로 가장 많으며(1년 이상~2년 미만 27%, 2년 이상~3년 미만 17%, 3년 이상 24%), 학력사항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76%로 가장 많고 고졸 취업자와 전문대 졸 취업자가 각각 8%, 대학원 석사 졸업이 5%, 기타가 3%입니다. 구직자 주요 전공은 어문계열 38%로 가장 많고, 상경 26%, 공학 22%, 기타 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에는 기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프로그램인 K-MOVE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망 및 연계 강화, 일자리 발굴 및 인재 양성 등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취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해외취업시 도움이 되는 특별한 역량이 있을까요?

각 나라별, 각 기업의 인재상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도 기준으로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영어), 현지 적응력, 태도가 1순위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또한 부수적 관점에서 중요하며, 포변적 취업역량인 업무 관련 경험 및 지식, 기획 및 보고 능력, 업무 관련 자격증, MS Office 활용

우수 등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인도의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업무에 대한 소통을 영어로 합니다.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업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보다는 어휘 구사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의 국내 기업에서는 한국인과 현지 직원의 협업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때문에 나의 업무 요점을 현지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고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문법이 틀려도 괜찮으니 업무 상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언어 사용 능력이 최상이면 좋으나, 실질적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KOTRA를 대표하거나 모든 해외취업을 대표하여 드리는 말씀은 아니며, 외국계 기업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Q. K-Move사업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서 KOTRA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KOTRA는 1962년에 설립되어 84개국 127개 무역관을 보유하고, 수출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경제 통상협력 지원, 투자유치 및 진출 지원, 그리고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합니다.

제가 뉴델리 무역관에서 전담하는 K-MOVE 사업이 여기서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업무인데요. 본 K-MOVE 사업은 2014년 3월 28일 고용부와 KOTRA와 위탁계약 체결 하 한국 청년인력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동포 단체, 기업, 대 한국 투자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집중 발굴, 취·창업 현장 지원 및 컨설팅, 멘토-멘티 운영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K-Move 홍보 등 K-MOVE 사업 수행을 위하여 편성되어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28개국 54개 소에서 규모에 따라 취업센터, 취업 거점, 취업 지원으로 분류되며, 해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지원, 취업 및 현지 정착 정보 제공, 헬프데스크, 노무 자문 등의 취업자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K-MOVE 소는(취업센터/취업 거점/취업지원으로 세세분류됨) 청년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 있는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제도와, K-MOVE SCHOOL(연수원)이 있습니다.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제도>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제도란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이란 현지 초기 정착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월드잡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진국은 400만 원, 신흥국(개발도상국)은 600만 원이 지원이 되며, 2021년 공고 기준 지원 인원은 선진국 2,700명, 신흥국 1,260명입니다. 단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월드잡 상의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며 문의는 월드잡 상의 정착 지원금 문의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K-MOVE SCHOOL>

K-MOVE SCHOOL(연수원)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전문연수기관을 선정 및 사무를 위탁하여 해외 진출 희망 청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연수비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 본 연수를 받고 현지 문화 및 노동법 등을 익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 사업은 이름이 KOTRA 사업과는 유사하나 해외취업을 위한 연수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 시 취업자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에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기업 정보, 업계 동향, 현지 취업시장 동향), 물리적 거리(해외 현지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채용 성사까지의 비요 소모), 현지 정착 및 적응의 어려움(커뮤니케이션 장벽, 문화 차이) 등이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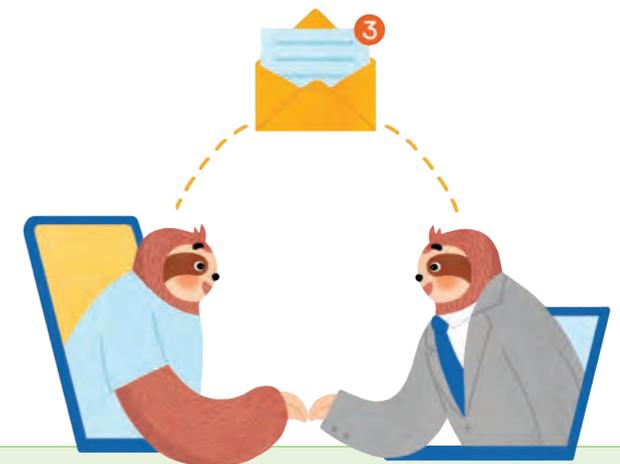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현지 취업을 위한 정보는 K-MOVE School 연수 프로그램과 KOTRA 해외시장 뉴스 및 K-MOVE 소의 취업 박람회 및 멘토링 행사를 통하여, 구인공고는 월드잡을 통하여, 초기 정착비용은 해외취업 정착금을 통하여, 현지 정착 정보 및 취업 시 마추하는 노무 문제 등은 KOTRA K-MOVE 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국내에서 막연하게 해외취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취업을 고려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시도조차 못했는데요. 인도에서 근무를 해보면 한번 언급 드렸다시피 문법 등 언어의 학문적 접근보다는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실무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며, 해외근무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니깐요.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고,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또한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운도 많이 따르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도전 없이는 행운도 찾아오지 않으니깐요!

첨연 드리자면 만약 실력을 이미 갖추고 계시다면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며,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제 경우에는 인도 내의 진출 한국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타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사항은 다른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책기자단 기자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과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어떤 경험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금 시작' 해볼까요?



MOEL News

1

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천명(12.2.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2.3. 기준)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천명(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 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21.2월 초, 12.2% → '21.12월 초, 34.1%)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 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 원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



습니다.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술인'('20.12.10.)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 명(11월 말 기준)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2.1.1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 1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9일 '국립극장'을 방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희색인간프로젝트 Part.2 고시원」(극단 달팽이 주파수)의 리허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 배우,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극단 '달팽이주파수' 및 공연기획사 '(주)스토리피' 관계자와 연극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천명이 넘었다"라면서, "문체부를 비롯하여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4.)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0일 (목)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여하는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기간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인력수급 관련 과제 중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15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규직 신규 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재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동구는 조선업 기술연수생 훈련장려금 및 청년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조선업희망센터(울산동구 소재)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선업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조선업 신규 취업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울산시와 동구는 청년 취업자의 정착을 위한 주거비 및 이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셋째, 조선업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중·미포조선 사내협력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수립·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울산시는 조선업 경영안정자금(200억 원)과 특례보증(75억 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사내협력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학자금, 주택마련대출, 숙소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씁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울산시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은 “최근 세계 선박시장이 친환경과 디지털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의 신속한 일자리 회복과 다시 한번 청년이 찾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조선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이자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업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주요 기업과의 협약 및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CTV 카메라 제조 및 정보통신 전문가 최지훈 대표 ((주)와치캠) 등 3명을 올해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월 13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1년 12월 기준 178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입니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주)와치캠 최지훈 대표는 CCTV 카메라 및 CCTV 카메라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공부한 최 대표는 CCTV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CCTV 카메라 제조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섭렵했습니다. 2010년 와치캠을 창업한 후 1년 만에 아날로그 방식이 전부였던 국내 CCTV 카메라 업계를 제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방식의 CCTV를 선보였습니다. 경쟁사들이 27만·41만·51만 화소 제품들을 판매할 때 21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4K 카메라를 출시했고, 산업용 블랙박스를 개발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CCTV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과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업으로도 진출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내에 교육장을 만들어 '정보통신마이스터교육'을 통해 공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1,200여 개 업체, 1,700여 명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와 500여 편 이상의 동영상 제작해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기능한국인으로서 선정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며 "그동안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선배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21세기 김성환 대표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생산라인에 필요한 공구를 개발한 전문가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제도와 졸업 후 드릴 등 특수 공구를 설계·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공구 설계 전문가인 사장으로부터 설계와 개발업무를 배운 김대표는 수입품 일색이었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용 공구 400~500개를 직접 개발해 공구를 국산화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후 창업해 자동차분야에서 전기와 전자분야로 넓혀 공구를 만들던 김 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구멍을 뚫어줄 수 있냐'라는 의뢰를 받고 레이저장비를 활용해 국내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겼던 가공기술을 개발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공기술을 연마한 김대표는 2019년,



ELID(Electrolytic In-process Dressing) 연삭 가공기술에 펨토초(1천조 분의 1초)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초정밀 절단용 블레이드(Blade, 원형 또는 직선형 칼날)를 개발했습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블레이드는 LCD패널과 OLED 마이크로 필름,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 2차 전지 박막 커팅 등 초소형 및 난삭재 전자부품 생산에 활용되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LED, 현대케피코 등 국내 대기업과 도시바, 온세미콘, 마이클론, 히타치 등 다국적기업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해마다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술력을 향상시킨 결과, 기능한국인의 영예를 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전 가공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에스제이빵오르방 최인호 대표는 2005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월드페이스트리컵 초콜릿공예 부문에 출전해, 역대 국내 최고 성적으로 입상한 제과제빵기술 전문가입니다. 최 대표는 1989년 한국제과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제과·제빵 기술을 익힌 다음 국내로 돌아와, 1999년 첫 번째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마늘과 도라지 등 우리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로 빵을 제조하는 데 있습니다. 참기름으로 볶아 마늘의 매운맛을 없애고 도라지, 연근, 상황버섯 등이 가진 특유의 향을 없애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았다. 현재 마늘 성분이 들어간 빵 제조방법 등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광고 등지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제과점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카페와 쿠킹클래스, 전시공간이 결합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세미나 개최, 재소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과·제빵교육 등 재능 나눔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빵오르방 최인호의 빵 이야기', '빵오르방 최인호의 잼 이야기' 등 3권의 책을 출간해 직업계고 등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원재료와 제조방법, 판매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을 담은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 - "기능한국인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성과 나눔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과 실력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분들이며, 또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이분들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을 마련·추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기업 수가 '16년 대비 83%가량 증가('16년 1,713개 → '21.11월 3,142개)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07~'16년)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6년간의 성과보다 지난 4년간 더 큰 성과(1.5배 가량)를 달성했습니다.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학위과정을 신설을 유도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학위 과정이었지만, 18년부터 학부과정이 신설됐고, '21년 현재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16년 0.74조 → '20년 1.62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e-store 36.5)을 구축('18년)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셜벤처 양성('19년~, 5개사), 소비자·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품평회('20년~, 연간 70여개 제품)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공동판매장(store 36.5)을 57개소('16년)에서 88개소('20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 기반시설 또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홈쇼핑 입점 지원(754회 송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17년~'20년간 39회)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온라인·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진출 등 판로 다각화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22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사다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18년~'21.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파트를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사다리, 로프 등)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22.1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3.5m 이하)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

K-디지털 아카데미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 통합 서비스인 「K-디지털 아카데미」를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공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직업정보와 채용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설된 「K-디지털 아카데미」에서는 ①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소개와 훈련과정 검색·신청, ②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과 산업 전망 소개, ③디지털·신기술 분야 채용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모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실습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등의 혁신 디지털·신기술 훈련도 분야별·수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훈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직업정보와 함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각 분야별로 주요 기술 단어를 '해시태그(hashtag)' 형태로 제시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고,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은 '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 평균 약 62만 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등 명실상부한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1년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147개 과정), K-디지털 크레딧(143개 과정)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하고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7

여수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월 14일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주)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금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안경덕 장관은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첫째, 이번 여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2,134개소)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②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며(자율점검표 배포), ③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할 것

* 주요 점검 사항: 각종 위험작업(화기, 밀폐공간출입, 고소, 전기활선, 굴착작업 등)시 화재위험 물질 제거, 가동중 위험작업 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 아울러, 불시점검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경영 책임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양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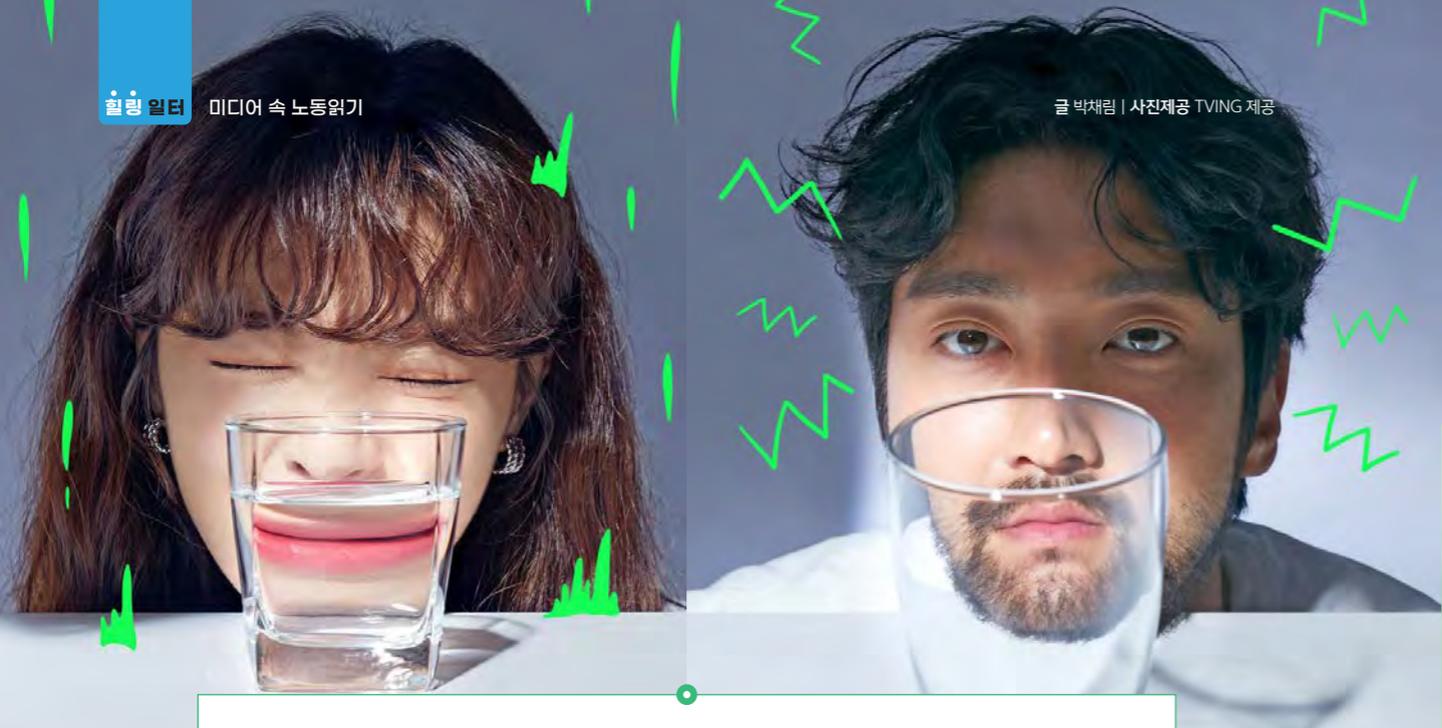
Healing

+

인생 2막, 불을 켜다

- 60 일하는 청춘을 위한 속 시원한 한 잔
- 64 보여줍시다! 우리의 호랑이 기운 · 혼자먹기 VS 같이먹기
- 66 신년에 시작하기 좋은 직장인 유형별 자기계발
- 68 새해를 맞아도 기쁘지 않은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 72 겨울철 건강관리에 좋은 추천 차 BEST 4
- 74 1월 영화·도서·음반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일하는 청춘을 위한 속 시원한 한 잔

고단했던 하루의 끝을 늘 술 한잔으로 위로 받는 세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고단하고 팍팍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술 한 잔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웹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을 위한 갈증해소 정책 처방전을 소개합니다.



퇴근 후 따로 만나자고요?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여기, 모든 게 '너무' 좋은 자칭타칭 인싸 한지연이 있습니다. 기업의 영양사로 근무하며 낮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동료 영양사들의 회식 분위기를 이끄는 당찬 성격인데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그녀에게 최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마다 찾아오는 박희장 때문이지요.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불러 개인 영양사 자리를 제안하거나, 호텔에서 따로 만나자는 말을 건네는 등 불편한 상황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의 말이 기에 대놓고 싫다는 내색을 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전 직원이 모이는 구내식당에서 자꾸만 마주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소문이 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언제까지 좋게 피해야 할까요?

☺ 여기서 잠깐!

직장내 괴롭힘 절대로 참지 마세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녹음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1350으로 연락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방법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문의: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학교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뭐하면 되나요?



이번엔 한지연의 친구 강지구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엄마의 등쌀에 열심히 공부해 교대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긴 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그녀에겐 영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만사에 대충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학생들은 강지구를 가만히 두지 않네요. 무뚝뚝하지만 주변을 두루 살피는 따뜻한 마음씨는 결국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향하는데요. 하지만 아끼던 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학생이 강지구에게 선물로 남긴 종이접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휘몰아치고, 부모님과 갈등으로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말지요. 더 이상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긴 했는데, 다른 길을 꿈꿔보지 못한 그녀에겐 앞날이 막막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강지구, 이제 뭘 하면 좋죠?

😊 **여기서 잠깐!**

새로운 배움이 필요할 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영상편집 기술은 필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유튜버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리미어 프로 영상편집 외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팅 과정까지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의: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저 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목마른 청춘의 막막한 내일찾기

<술꾼도시여자들>의 마지막 주인공은 출판사에 다니는 안소희입니다. 불 같은 성격의 지구와 선 넘는 쾌활함을 가진 한지연까지, 두 친구 사이에서 중재와 화합을 담당하고 있지요. 매일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만 시키는 직장 상사도 참았고, 매일 이어지는 야근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도 참았습니다. 경력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요.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는데요. 자서전 대필이라는 임무를 맡고 찾아간 그곳엔, 어라? 친구 한지연을 괴롭혔던 상사 박회장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회식자리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까지. 평온한 성격의 소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시원하게 퇴사를 선언하고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이럴 때, 술 말고 힘이 되어줄 무언가 있을까요?

😊 **여기서 잠깐!**

구직급여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데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신년에 시작하기 좋은 직장인 유형별 자기계발

다가온 신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이라면 주목!
건강관리, 외국어 공부, 재테크 공부 등. 새해를 맞아서
시작하기 좋은 자기계발을 소개합니다.



건강이 최고

▶ 체력단련형

#다이어트 #오하운 #홈트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고 실내에서 집콕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체력과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집에서든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홈트레이닝 영상이나 수업도 늘고 있다고 하니. 포기하지 말고 올해도 건강해져 보자구요!



지식인이 되어볼까

▶ 독서삼매경형

#북스타그램 #책덕후

독서가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 메말라가는 감수성을 충전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탐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를 아우르는 트렌드나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서점에 각종 자기계발 서적이 쏟아지는데요. 관심 있는 저서를 찾기 위해서 오랜만에 서점 나들이에 나서보는 것도 좋겠죠.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 외국어마스터형

#제2외국어 #영어 #중국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끊임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여행 계획을 꿈꾸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접 해외에 나가기 어렵다보니 전화나 화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가즈아

▶ 재테크공부형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재테크 열풍이 뜨거웠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그 열풍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일과 재테크 공부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새해를 맞아도 기쁘지 않은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노무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년에도 실의에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답해드립니다.



Q1 앱을 통해서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영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폐업신고를 하고 연말쯤부터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일은 많은 편이라 급여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요. 언제 일이 끊길지도 모르고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언제 생활비가 부족해질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로,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분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받게 됩니다.

플랫폼종사자는 일의 특성상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자도 생활의 안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①일을 그만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며, 플랫폼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지난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이고, ②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③플랫폼 종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가 본인이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했다 하더라도 플랫폼종사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등 법으로 정해진 소득 감소로 인해 일을 자진하여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저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서 기쁘지가 않네요. 다시 상반기를 도전하기 전까지는 스펙을 쌓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데요. 해가 바뀌고 나서 받은 첫 임금의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맞춰서 최저임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월급여를 역으로 추산해서 보니 2021년 기준으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동네에 있는 개인 카페인데요. 사장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 상황이 힘든 것을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하시면서, 해당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알바생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도저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요. 바뀐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202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160원이고, 8시간 임금 기준으로는 73,280원,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업무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 기준으로 '지급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10%인 191,444원,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인 38,28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당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데, 아마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당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하라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 생활 3년차 주임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회식에서 직속 상사인 차장님께서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해당 가해자 차장님과 다른 부서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평소 차장님과 친분이 있던 부장님께서는 저에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목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차장님과 부장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업무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하는데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계속 다니면 같은 수모를 당할 것 같고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에서 상담자는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하여 직접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상황을 목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인 상담자에게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회사는 ①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②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고, ③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④또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⑤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상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①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가 없었고, ②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와 함께 업무지적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담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상사인 부장에 의해 목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 대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①먼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실확인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상담자의 현재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행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을 가했다면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상담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위자인 차장과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④더불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을 중지하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1개월 된 아이를 품고 있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일단 제가 출산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바로 복귀하려니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곁에 있어주고 싶은데, 제 커리어도 포기할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3개월 이상의 출산휴가나 휴직을 사용 시 복직없는 퇴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육아도 커리어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후 출산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하여 별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상담자의 육아휴직 요구에 대하여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지어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자는 육아휴직을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벌칙 규정을 토대로 회사의 제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도 회사의 업무 요구에 대하여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상담자의 배우자도 배우자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배우자도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상담자가 육아휴직을 1년 전체가 아닌 몇 개월 정도 사용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소득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자의 커리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하여 만일 업무의 성격상 육아휴직 자체가 커리어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1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좋은 추천 차 BEST 4

추운 겨울에는 평소보다 몸이 둔해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관리가 어렵습니다. 겨울철 건강한 신체에 도움을 주는 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모과차

서늘한 환절기 목감기가 걸리면 모과차가 좋다는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모과차는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찬 분들에게 좋은 차입니다. 또 비타민C, 구연산, 사포닌이 들어있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탁월하고 신경통, 근육통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생강차

알싸한 향과 맛을 특징으로 하는 생강차도 겨울철 건강 관리에 좋은 차입니다. 생강차 역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화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데요. 또 감상선 질환, 여성 질환 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오미자차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 맛도 효능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흡기 면역력에 좋은 오미자차는 다양한 맛을 가진 매력적인 차이죠. 오미자 열매로 만드는 오미자차는 체력을 보강해주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또 혈압을 조절하고, 간장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유자차

달달하고 상큼한 맛의 유자차도 겨울을 대표하는 차로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차는 감기 예방과 숙취 해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신진대사를 돕고, 노화 방지,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고 풍부한 엽산이 임산부에게도 좋다고 해요.

새해에 보기 좋은 에너지틱 무비



상상만 하던 모험이 실현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새해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하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좀처럼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폐간 위기의 잡지사의 사진부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월터는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지만 그 상상을 실현에 옮기기란 쉽지 않죠. 그런 그의 일상에 어느 날 모험이 끼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사진이 사라지면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평생 가보지 못했던 국가로 떠나게 되고, 상상만 하던 월터의 지루한 일상은 실제로 모험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상상만 하던 일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한 월터와 함께 올해는 특별한 모험을 떠나볼까요?

라지면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평생 가보지 못했던 국가로 떠나게 되고, 상상만 하던 월터의 지루한 일상은 실제로 모험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상상만 하던 일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한 월터와 함께 올해는 특별한 모험을 떠나볼까요?



바쁜 일상 속 찾는 삶의 지혜

<인턴>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 니로의 출연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한국에서도 약 3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성공한 영화죠. 영화 <인턴>은 창업 1년 반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30대 창업자 앤 해서웨이와 수십 년 직장생활 후 퇴직 생활을 누리다가 다시 시니어 인턴으로 새 커리어를 시작하는 70대 인턴 로버트 드 니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의 생동감 넘치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두 인물의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가슴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루하루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싶을 때,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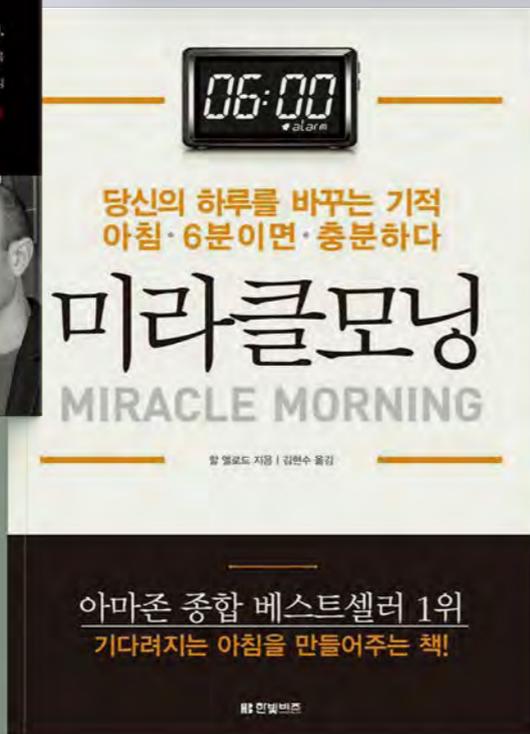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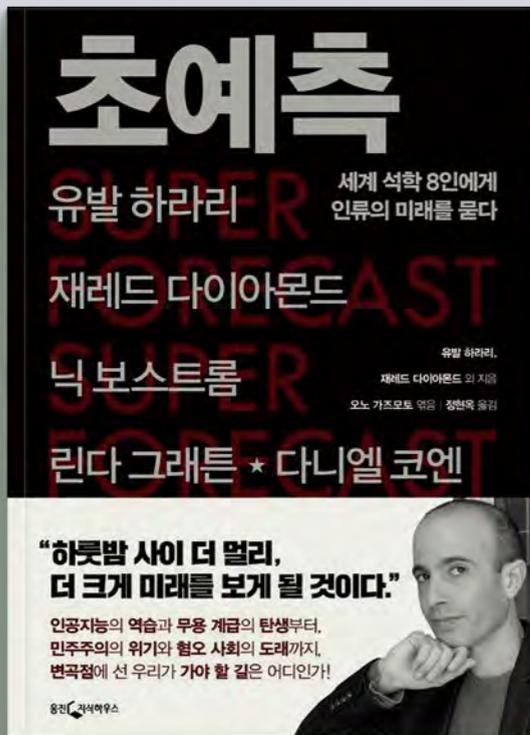
생의 마지막에 실현하는 버킷리스트 여행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정비사 모건 프리먼과 백만장자이지만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잭 니콜슨. 두 사람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채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도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로 하죠.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이루

는 데에 함께 동참하면서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고 생의 마지막, 특별한 우정을 이어가는 그들. 그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올해 주어진 나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추천 도서



TIGER OR CAT <트렌드 코리아 2022>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도서들이 쏟아지죠. 2022년도 어김없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2년 전망이 도서로 출간되었습니다. 나노사회, 머니러스,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재감테크, 라이크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을 통해서 한 해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보고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석학 8인 인터뷰로 듣는 인류의 미래 <초예측>

유발 하라리, 재레드 다이아몬드, 린다 그래든, 마이클 샌델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의 단독 인터뷰가 담긴 저서 <초예측>. 이 도서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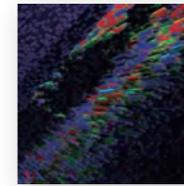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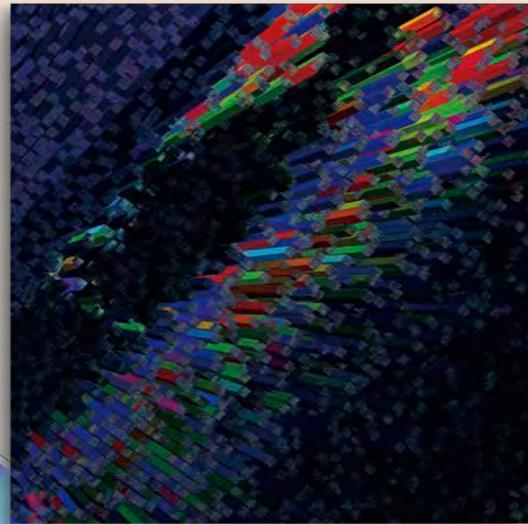
생각과 고민, 예측이 담겨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등. 8가지 질문으로 분류된 챕터를 통해서 세계 석학들의 생각을 함께 따라가며 미래에 대한 사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적으로 바꾸는 <미라클 모닝>

2016년 출간되어 2030세대들에게 자기계발 트렌드가 된 '미라클 모닝'의 시초가 된 책이죠.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미라클모닝 챌린지'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라클 모닝이란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운동이나 독서, 영어공부 등 자기계발 등을 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미라클 모닝 다이어리>라는 실천을 돕는 책도 나왔다고 하니,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흥겨운 플레이리스트



호랑이 해에 제격인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유튜브에서 4천 8백만뷰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판소리를 알린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는 베이스, 드럼, 판소리 보컬 등의 멤버로 구성된 얼터너티브 팝 밴드로 2019년 결성되어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범 내려온다>라는 곡이 수록된 앨범은 한국의 판소리인 '수궁가'를 모티브로 하여 개성 넘치는 사운드 트랙으로 편곡했는데요.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들으며 신나게 한 해를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가호 <시작>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OST로 유명한 곡이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극중 주인공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메가 히트한 곡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힘든 시기지만 시원하고 경쾌한 사운드와 희망적인 가사의 이 곡과 함께라면 올해도 어쩔지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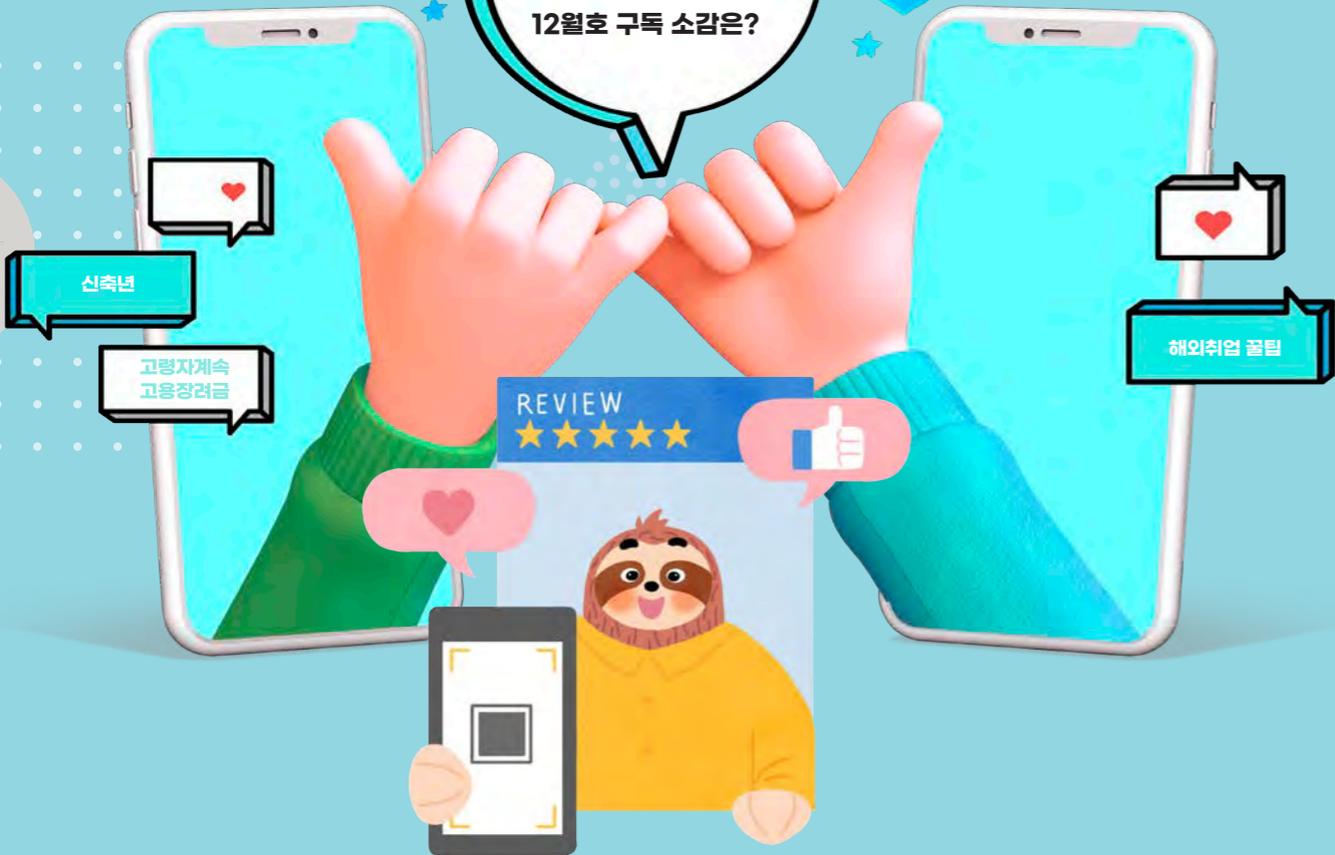
새해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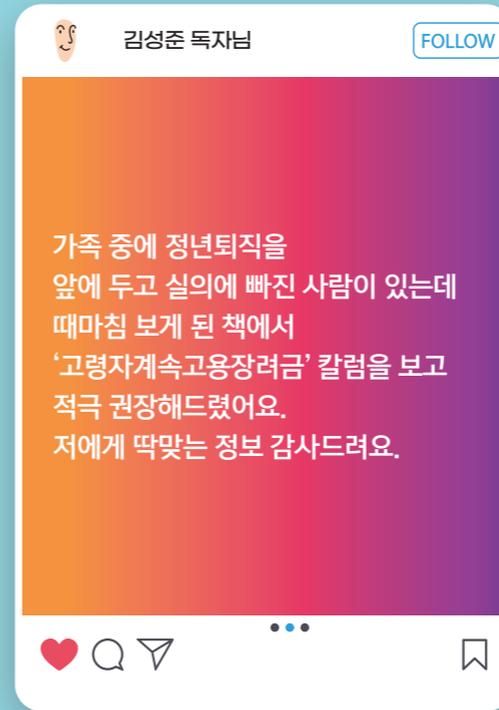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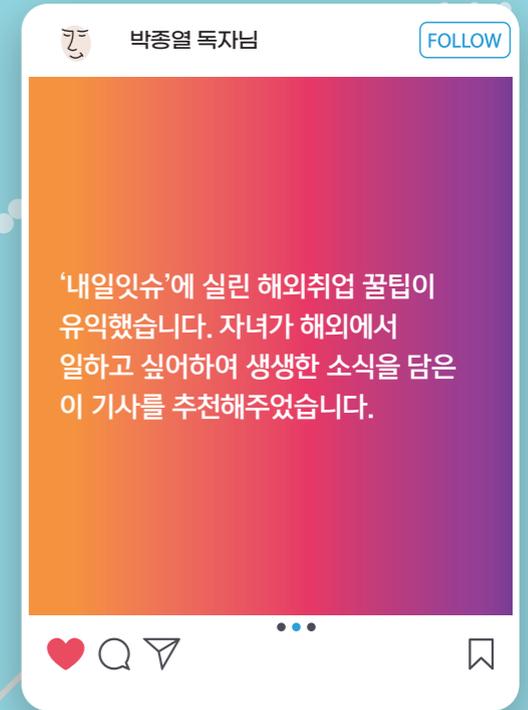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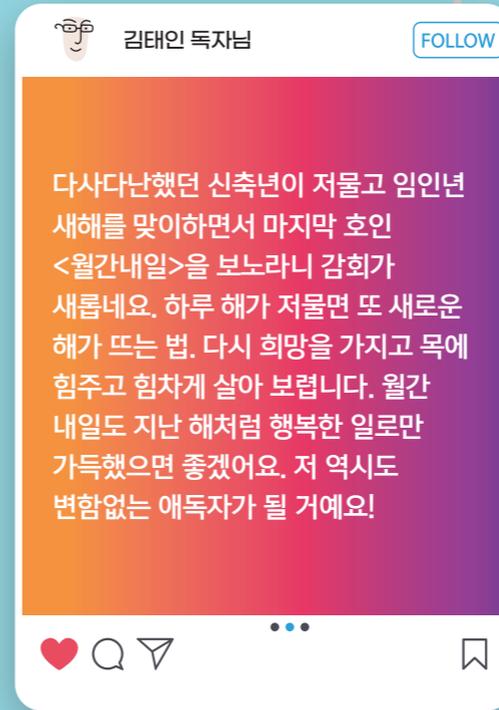
연젠가부터 서로를 응원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하곤 하죠. 결혼식 등 좋은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인공들이 걷는 길 앞에 꽃을 뿌리며 길을 만들어서 축복하곤 하는데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데이브레이크의 경쾌한 가사를 들으며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해볼까요? 2022년을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 앞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응원합니다.

#내일스타그램

지난 달
늘봄이의 질문
월간내일
12월호 구독 소감은?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편이나 웹진으로
정답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는
애독자 분들의 우수 사연을 선정하여
지면에 공개합니다!



블록 퀴즈 온 더 블록! '빙고 챌린지' 편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인사말 3개 외우기	물무게 500그램 빼기	아침 간단히 챙겨먹기	자기개발 영상 1개 유튜브에서 보고 소감 공유하기	새해 안부 연락하기
아무 책이나 골라 30페이지 읽기	새로운 SNS 계정 만들어서 글 하나 올려보기	MBTI 테스트 해보기	원하는 분야 뉴스레터 구독신청하기	업무 관련 자격증에 뭐가 있는지 3개 파악하기
물 2리터 이상 먹기	하루 만 원만 쓰기	?	자기 전 10분 명상하기	영어단어 10개 외우기
하루 만 보 걸기	서점에서 나에게 주는 책 선물하기	피부 관리를 위한 마스크 팩 하기	출근 10분 일찍 해보기	스쿼트 30개 하기
2022년 트렌트 분석 기사 1개 읽기	지금 당장 롤모델 정하고 배울 점 하나 찾기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외우기	오늘의 경제 뉴스 탑 10 훑어보기	거울보고 스스로 칭찬 3가지 해주기

위 빙고는 새해를 맞아 사소한 실천으로 소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월간내일> 편집실에서 만든 자기개발 빙고입니다.

가운데에 빈 빙고판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나요?
큰 목표부터 사소한 목표까지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한 가지 꼽아서 보내주세요.

우수한 답변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을 선정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특별한 답변은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퀴즈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12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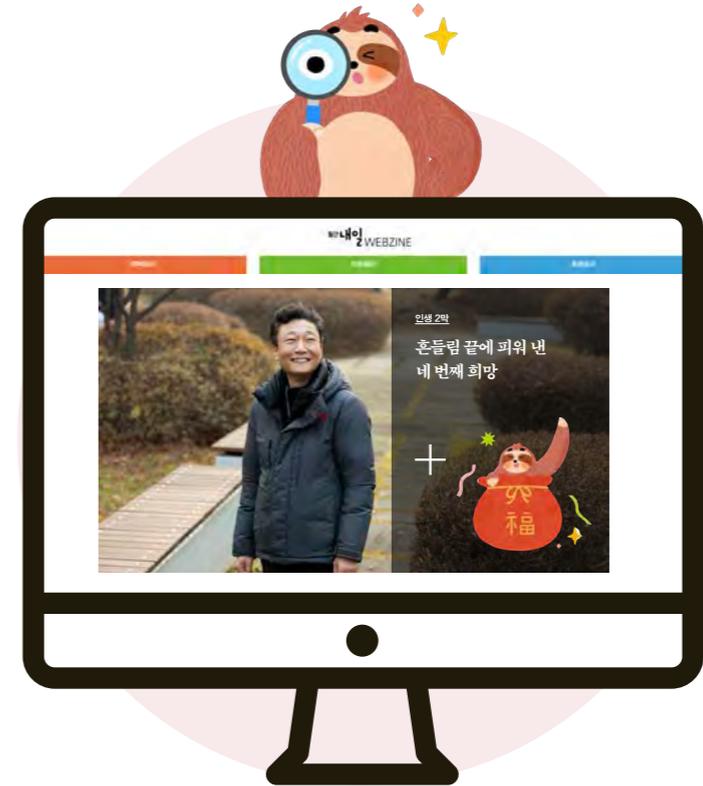
오소윤(4527) / 이지현(6213) / 이준임(7498) / 이주연(9721) / 한현정(6927)
유미진(6945) / 김은주(4254) / 박종열(8650) / 김태인(3175) / 김성준(5657)

퀴즈 당첨자 분들께겐
1월 마지막주에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3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